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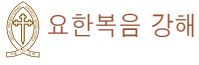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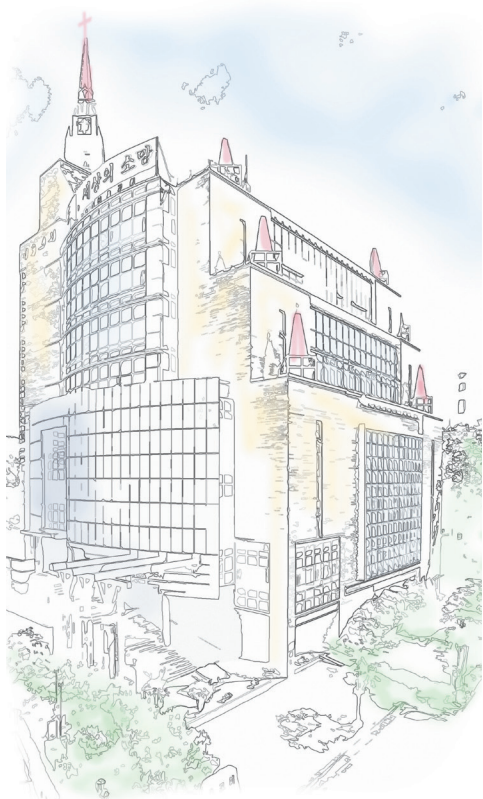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안식일 논쟁 II

(요 5:10-18)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 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고의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3. 주일의 의미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는 ‘은혜’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주일에 일어난 열한 가지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①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 118:24). 이 날은 건축자의 버린 돌, 곧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건, 결코 우연이 아닌 역사적 부활이 일어난 날이요 새 시대가 도래된 날이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입니다. 부활로부터 새 시대가 출발했으므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입니다.

② 이 날은 부활 승천을 예고하신 날입니다(요 20:17). 그러므로 안식일은 기쁜 날만이 아니고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③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④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떡을 나누던 날, 제자들의 이해의 눈이 뜨여 주님을 알아보게 된 날도 주일입니다(눅 24:45).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비로소 이 날에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⑤ 이 날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신 날입니다(요 20:22).

⑥ 이 날은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가시면서 명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⑦ 이 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므로 교회가 탄생되고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하지만 부활이 없는 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⑧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명령하신 날도 주일입니다(행 20:6).

⑨ 말씀이 있는 날입니다.

⑩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고전 16:2).

⑩ 요한이 밧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주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기보다 율법적으로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에 대한 정신이 많이 흐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4.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 복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5:11).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비난하면서 병 나운 사람에게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였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불순종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12절)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쌍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만을 추궁합니다. 그들은 죽을 사람을 살린 공훈보다는 사람들의 헛된 유전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초월한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사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주일)을 지키되 율법을 따라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날이므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과 받은 바 은혜를 나가서 전하는 일,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는 봉사의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식일에 동참하여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측, 손해배상 판결 후 점거 중이던 교회건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다

- 이번 주일부터 교회 모든 예배 정상화 -

“

법원에서 비록 1심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가집행이 함께 선고되자
박노철 목사 측은
즉각 교회건물 반환에 착수

.....

박노철 목사는 위 판결 이후
원로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신의 무지로
여러 판단을 잘못하여
원로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들께
극심한 고통을 드렸다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

2020년 10월 14일(수) 법원에서 당회가 박노철 목사 측에 대하여 청구한 교회건물반환과 손해배상액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주 주일예배를 끝으로 즉각 건물반환에 착수하여 21일(수) 이를 완료하였다

법원에서 비록 1심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가집행이 함께 선고되자 박노철 목사 측은 즉각 교회건물 반환에 착수하여 그동안 진입차단을 위하여 1, 2층 계단 사이와 지하층에 설치한 쇠파이프, 철조망 등 각종 차단시설을 스스로 철거한 후 사무국장에게 인계를 마쳐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예배를 정상화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17년 초 박노철 목사 측의 돌격단 예배가 시작된 후 4년 가까이, 그리고 2018년 3월 9일(금) 생각하지도 않았던 박노철 목사 측의 불법용역을 동원한 교회건물 점거가 시작된 지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본당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예배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계획하고 주관하여 주신 우리의 참 소망이신 능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당회를 신뢰하며 묵묵히 서울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굳게 버텨준 많은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위 판결 이후 원로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신의 무지로 여러 판단을 잘못하여 원로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들께 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38154 건물인도 등 청구
원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7, 1층(대치동, 교회) 대표자 직무대행자 변호사 강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 고	별지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3,869,362,000원 및 2020.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배필 120,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심한 고통을 드렸다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하며 이어서 교회 건물 내 목양실에 있던 개인서적도 모두 반출하였으며 사태도 옮길 처소를 급히 마련하는데로 반환하겠다는 말도 전해 왔다

이에 당회는 조속한 교회회복보다 성도들께 더 우선시 되는 가치는 없다는 전제 하에 박노철 목사 측에 대한 강제적 압박보다 자발적 이행을 통해 교회회복의 신속화과 후유증 최소화에 중점을 두면서 무엇보다도 교계 안팎에 교회사역에 있어서뿐 아니라 교회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통상의 사례를 탈피한 서울교회다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생각으로 돈이 개입되지 않은 마무리, 용역으로 맞대응 하지 않고 인내로 얻어낸 마무리, 분쟁 양측 모두가 피눈물 나는 아픈 기억과 상처를 더 이상 되새김질 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여 잠시라도 실추되었던 서울교회의 위상과 명예가 회복되고 주위로부터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였다고 뒤늦게라도 칭찬받을만한 자랑스런 교회를 우리의 신앙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의 동참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교회 각 구석을 직접 청소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동참이 가능한 성도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백승갑·박길자 신동기 박혜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순례자 주최 -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0 사명자대회 일환으로 순례자에서는 '2020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펜, 크레파스, 매직, 나뭇가지, 붓, 잉크, 먹, 물감, 타블릿, 아이패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쓴 손글씨를 의미한다.

* 참가방법

-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코람데오(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혹은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를 손글씨로 작성
-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성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 제작방법

사이즈 : 최하 A4용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손글씨로 작성하고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순례자에 전달하면 된다. 손글씨 재료나 참가 갯수 또한 자유다.

* 참가 자격

유아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서울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기한

2020. 11. 15(주일)

*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참가자들에게는 순례자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하다

- 서울베다니교회 권용평 원로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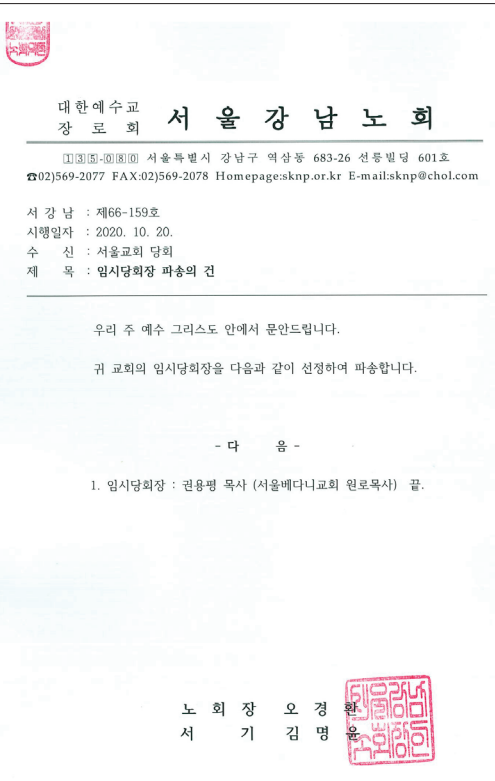


권용평 목사
(서울베다니교회 원로목사)

“
교회분쟁 초기
대리당회장으로 거명되거나
법원 직무대행자 사건에
당회원들이
직무대행자로 추천도 하였던 분
누구보다도
서울교회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
”

2019년 12월 10일(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이 선고된 직후 당회 과반수 당회원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하였고, 이에 총회에까지 임시당회장 파송지시를 청원하자 총회는 즉각 이를 받아들여 서울강남노회에 이를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가 계속 이행하지 않자 총회는 추가로 2, 3차 행정지시를 연달아 내리면서 이번 가을노회에서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필히 결의하여 이행하고 만일 그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자들을 의법조치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하였는데 다행히도 서울강남노회는 지난 10월 20일(화) 총회에 약속한 가을노회 이전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남노회**
 ☎02)569-2077 FAX:02)569-2078 Homepage:sknp.or.kr E-mail:sknp@chol.com
 서강남 : 제66-159호
 시행일자 : 2020. 10. 20.
 수신 : 서울교회 당회
 제목 : 임시당회장 파송의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귀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파송합니다.

- 다 음 -

- 1. 임시당회장 : 권용평 목사 (서울베다니교회 원로목사) 끝.

노 회 장 오 경 환
 서 기 김 명 윤



에도 임원회 결의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준 것이다.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서울강남노회 소속인 서울베다니교회 원로목사이시고 교단 내 헌법전문가로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신 분으로 최초 서울교회가 발족할 때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고 분쟁 초기 대리당회장으로 거명되거나 법원 직무대행자 사건에 당회원들이 직무대행자로 추천도 하였던 분으로 누구보다도 서울교회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 교회회복 과정에 그 역할이 특별히 기대가 된다

그동안 편향적인 행정으로 많은 성도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던 서울강남노회가 이제라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서울교회 회복과 정상화에 상회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한다.

예배의 회복으로!

새벽기도회, 교회예배 새롭게 시작

교회예배와 온라인예배 병행

교회가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드러지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교회예배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서의 새벽기도회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영상은 제공하

되 교회에서 드러진 새벽기도회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필요해 당일 오전 10시 이후 접속이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예배를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의 참석 기

교회 입장 시 발열체크 필수

이번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 교회 출입 시 발열체크 방식이 변경되었다.

교회 입장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돌계단 쪽 문은 개방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성도들도 있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한다.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2층에서 돌계단 쪽 문을 개방하여 코람데오횥으로만 나가도록 하여 성도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입장 시 '자동발열체크기'에 등록이 안된 성도들은 교구와 성명 등을 반드시 등록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예배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회 점검 및 부서별 대청소

부서별 대청소

10월 31일(토) 오후 2시-5시

교회 건물을 박노철 목사 측에게서 반환받음으로 더럽고 훼손된 교회 건물들을 점검 중에 있다. 먼저 기존 2대의 엘리베이터는 3년 가까이 운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관계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의 점검과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이 날 때까지 당분간은 사용이 어렵다. 현재 2층부터 운행이 되는 전망 엘리베이터만 사용이 가능하니 윗층으로 올라가실 성도들께서는 노약자를 우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전체 대청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각 부서별 사용 공간의 청소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 사용하는 봉사부서를 중심으로 교회 대청소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한다. 많은 성도들의 협력바란다

2020 성경암송대회 일주일 앞으로

예선 : 11월 1일 (주일) 교회·온라인

본선 : 11월 7일 (토) 교회·온라인

2020 성경암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가 회복되어감에 따라 2020성경암송대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전교인 암송 : 본선 11월 7(토),
 서울교회 현장암송

- 교육부서 암송 : 예선 · 본선 11월 1일(주)

부서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교회 암송 병행 운영한다.

-암송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각 교구 간사나 김혜연 집사(010-3923-9913)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서울교회 분쟁의 시간을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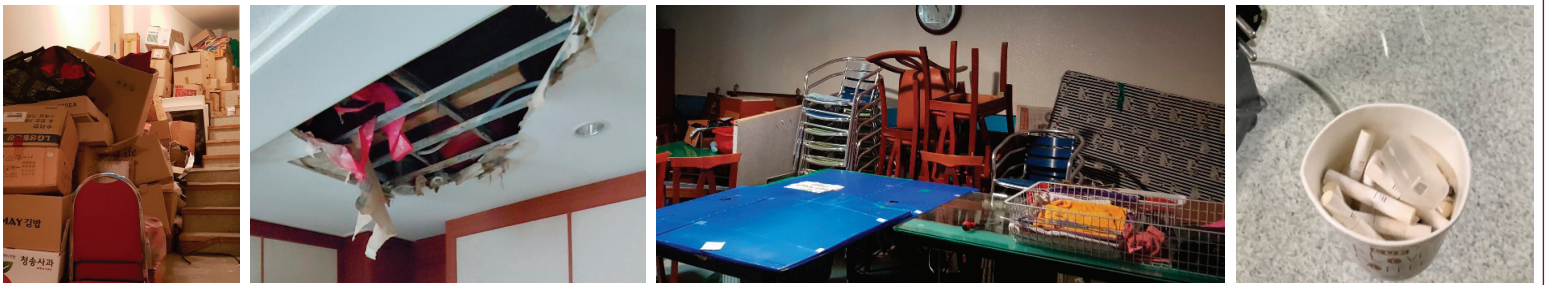
번호	일시	개요
1.	2015년 후반	박노철 목사의 목회역량과 자질 문제로 서울교회 분쟁이 시작됨
2.	2016년 중반	박노철 목사 측의 본격적인 안식년제도 거부와 함께 교인들을 지지와 반대 두 진영으로 나누어 버림 - 2016년 4월 3일, 박노철 목사 측은 밴드를 개설하고 성도들을 규합하기 시작함
3.	2016년 12월 29일	법원은 안식년제를 근거로 청구한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 그러나 위 기각결정은 이후 법원에서 반대 측의 1, 2심 본안판결 승소와 안식년제를 근거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으로써 사실상 번복됨
4.	2017년 1월 14일	박노철 목사 반대 측, 헌법위원회 헌법해석에 따라 임시당회 개최 - 이로 인해 원로목사님은 총회재판국에서 견책판결을 받고 재심청구 중임
5.	2017년 1월 22일	박노철 목사, 지지 교인들과 함께 교회건물 외부계단 등에서 따로 예배를 시작함
6.	2017년 4월 30일	박노철 목사 측, 당회허락도 없이 15인 장로를 불법 선출함
7.	2017년 6월	법원은 박노철 목사 반대 측 교인들에 대한 출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 - 그러나 위 가처분 인용결정 역시 이후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본안 소송판결 승소에 따라 근거를 상실하게 됨
8.	2017년 9월 11일	제101회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행정사건 세 건 모두 박노철 목사 반대 측 승소판결 함
9.	2018년 2월 13일	제102회기 재심 재판에서 위 세 건 모두 번복하는 판결을 함- 그러나 이후 제103회기 재재심 재판에서 그 중 두 건 파기되어 다시 바로 잡힘
10.	2018년 3월 9일	박노철 목사 측 불법용역을 동원하여 서울교회를 기습점거 한 후 법원의 2018년 3월 2일자 장로임직금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3월 18일 불법으로 선출한 15명을 임직시킨 후 다음날 20억 인출 등을 위한 임시당회를 개최함-그러나 이후 법원의 장로임직 및 임시당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하여 결국 15인에 대한 장로임직과 임시당회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게 됨
11.	2018년 6월 14일 2018년 12월 18일	법원, 안식년 규정 관련 본안 1심 승소판결 법원, 안식년 규정 관련 본안 2심 승소판결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판결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2018.1.1.부터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따라서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고, 박노철 목사의 항소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음
12.	2019년 4월 12일	법원,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선임결정으로 교회 행정과 당회 기능이 법적으로 정상화 됨 - 위 1, 2심 안식년 관련 본안판결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 시까지 박노철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직무정지가처분 결정과 그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함- 박노철 목사 측은 위 직무대행자가 목사도 아니고 노회파송 임시당회장도 아니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번에 선고된 손해배상판결은 위 직무대행자의 법적효력이 유효함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임
13.	2019년 5월 14일	103회기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 임직무효확인 판결

번호	일시	개요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2019년 5월 14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강남노회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장로임직시킨 15인에 대하여 임직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이들에 대한 장로임직은 모두 무효가 확정되었음-그럼에도 박노철 목사 측은 교회 내, 외에서 이들에 대하여 장로라는 호칭을 쓰는 것까지 숨긴 채 계속 장로로 취급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음
14.	2019년 9월 27일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2019년 5월 14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강남노회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장로임직시킨 15인에 대하여 임직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이들에 대한 장로임직은 모두 무효가 확정되었음-그럼에도 박노철 목사 측은 교회 내, 외에서 이들에 대하여 장로라는 호칭을 쓰는 것까지 숨긴 채 계속 장로로 취급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음 서울중앙지검, 박노철 목사 등 4인 용역동원관련 죄목으로 법원에 정식 기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중임 -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3월 9일(금) 오후 7시경 '궁중족발'등 세상 여러 강제철거현장에 얼굴을 드러냈던 용역강패들을 앞세워 박노철 목사 반대 측 성도들을 폭행하고 교회건물을 폭력으로 무단 점거한 사건에 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 경비업법위반, 예배 방해죄 등 7가지 죄목으로 법원에 정식 기소되어 목사로서 용역원들과 함께 법원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은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15.	2019년 12월 10일	104회기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정직 6개월과 출교판결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의 교회동장 무단 재발급 및 비밀번호변경과 효력이 지난 서류를 첨부한 고유번호출 대표자 무단 변경, 불법 외부 용역동원과 교회건물점거 및 장로불법임직 등에 대하여 관여 재판국원 만장일치로 정직 6개월과 출교를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출교는 서울교회와 소속 서울강남노회에서 박노철 목사가 제적되는 효력을 가지므로 위 출교판결로서 박노철 목사는 위 안식년 관련 대법원판결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이 때문에 박노철 목사는 이후 서울교회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됨
16.	2020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오정수 장로 등 7명 전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함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6월, 오정수 장로가 차명계좌 수백 개를 운영하며 원로목사는 물론 역대 사무국장, 재정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백십억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했고 이를 수사한 수사경찰서는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은 계속 이루어진 검찰인사로 담당검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사정 때문에 송치 후 1년 7개월이라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지난 2020년 9월 14일 피고발인 전원에 대하여 경찰 의견대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임-고검에 항고하여 계류 중임
17.	2020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철 목사 측의 교회 건물 불법점거에 대한 건물반환 및 손해배상 판결 박노철 목사 측이 2018년 3월 9일 용역을 앞세워 교회건물을 불법점거 한 후 박노철 목사 반대 측 성도들의 진입 사용을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회건물 반환과 38억여 원 및 반환 시까지 계속 매월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함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4년여, 건강하던 서울교회를 JTBC나 MBC PD수첩 등 반기독교적 언론의 먹잇감으로 제공하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만 세상에 비춰 복음전도의 길만 막아 버렸고, 무엇보다도 한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할 목사가 수천 성도를 흠여지게 하고 복음전도의 길까지 막아 버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의 상처와 회복!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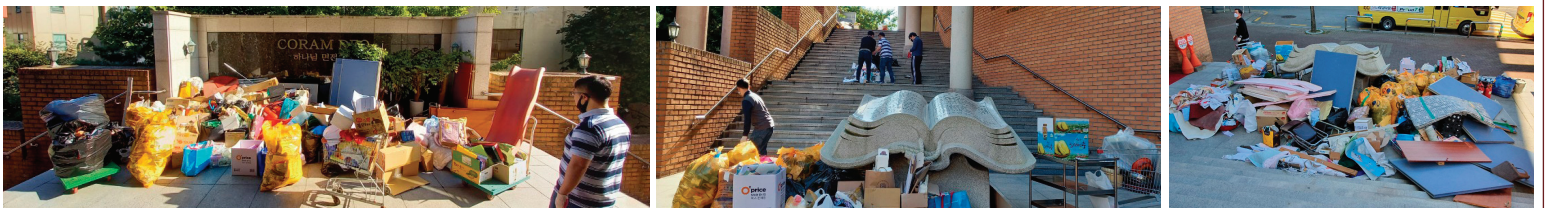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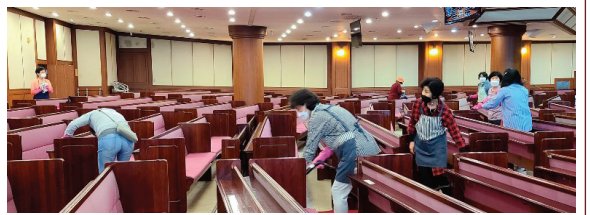


교회 건물이 완전히 반환
되면서 10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본당 청소가 있었습
니다.

멀리 대전으로부터 가평,
양평, 남양주는 물론 서울교
회 인근에 이르기까지 8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로
더러워지고 상처입은 교회의
대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수고의 땀
을 흘림으로 본래의 서울교
회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습
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
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03주년 종교개혁주일

교회는 늘 개혁하여야 한다!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의 종교개혁기념비 부조. 왼쪽부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파렐, 칼뱅,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의 씨앗을 뿌린 닉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다. 교회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마르틴 루터는 매우 깊은 고민을 했다.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안 하는 이유는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 때문이었다. 루터가 살던 시골 도시 비텐베르크에서는 면죄부를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은 이웃 도시까지 가서 면죄부를 구입해 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면죄부를 가졌으니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면제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면죄부 판매 수입은 교황청이 로마의 베드로성당 건축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주교가 되기 위한 뇌물 자금으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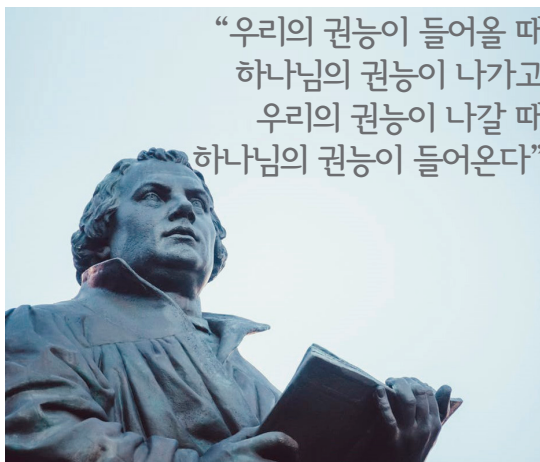
가톨릭 사제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마틴 루터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다만 토론이나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었

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수도원 옥탑방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교황청을 향해 매우 날카롭게 95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교황은 왜 자신의 돈으로 베드로성당을 건축하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베드로성당을 건축하는가! 교황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화를 외치지 만 정작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지 않은가" 라고 했다.

루터가 겨누는 것은 500여 년 전의 유럽뿐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속화되는 교회와 십자가 대신 면죄부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루터의 '95개 논제'는 순식간에 퍼졌다. 독일 시골 마을의 사제 교수가 써붙인 종이



“우리의 권능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고 우리의 권능이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온다”

한 장이 '중세교회의 뇌관'이 되었다. 교황 레오 10세는 1520년 6월 15일자로 루터에게 교서(파문 경고장)를 내렸다. 교황은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다닌다며 루터의 저술을 불태웠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교서를 참나무 아래서 태워버렸다. 제국의회는 루터에게 '철회'를 요구했고, 루터는 당당했다.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다.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취소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양심에 반해 행동하는 건 구원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그 시간은 사제로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등지는 순간이었다.

교황은 결국 루터를 파문했다. 이후 루터는 일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10개월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종교는 늘 개혁을 요구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루터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별 수 없는 죄인인 인간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역시 이 땅의 일부 타락한 목사들이 단단히 한 뭇을 하고 있다. 그들의 빛나간 리더십과 성경 대신 세속화된 가치관이 교회 타락을 부추기고, 복음에 대한 열정 대신 자신과 가족의 안락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 교회 안에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가만히 들어와 판을 친다.

루터는 말했다. "우리의 권능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고, 우리의 권능이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온다"고...

(편집부)



위) 마틴 루터 동상
아래) 비텐베르크 문

이제 다시
기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최원석 집사
(2020사명자대회
동원분과장)

교회에 주신 사명과 교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다음 성경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

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행 2:42-47).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다소 희미해지거나 약화된 것 같아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신앙이 약화되고 성도간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봉사, 전도 등 교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2020 사명자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서울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며 빈약한 자를 구제하는 목표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최근 수년간은 그 사명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긴 혼란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의 시기에 50일간 사명자대회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며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서울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여받은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금년도 사명자대회는 교회 혼란을 종식시키고 그 이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정상화된 내년도 서울교회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라도 비대면 다락방 모임과 기도를 활성화하고, 혼자 시간을 내서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사명자대회의 핵심입니다. 자율기도신청서를 통해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온라인 새벽예배 참석을 통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명자대회 표어인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서울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산나대학,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발달장애인 취업사관학교인 호산나대학은 10월 12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호산나대학은 이번 정시 모집으로 총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판정을 받은 대상으로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다.

호산나대학 학부과정은 교양학부 1년, 전공학부 2년으로 나누어지며 원하는 학생은 졸업 후 인턴십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과 중심 대학'으로 전공학부는 노인케어학과, 애견케어학과, 뷰티케어학과, 사무자동학과, 서비스학과 5개 학과로 운영된다. 또한 전교생에게 1년간의 교내 기업 채용을 통해 약 1년치의 등록금 감면 효과를 주고 있다. 개교 15년 동안 발달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학제 운영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꿈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평생관리 교육시스템을 추구한다.

입학 희망자는 호산나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일 경우 호산나대학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입학 시험은 11월 21일(토)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27일(금) 공지될 예정이다.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 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호산나대학 홈페이지(www.hosannacollege.net)와 호산나대학 입학관리팀(031-585-91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도여러분 주변에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의 있으시다면 많은 관심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학부모기도회'



온라인 학부모기도회가 매일 아침 성경말씀 1절을 묵상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오전 9시에는 "3분의 기적" 말씀묵상, 밤 10시에는 서울교회와 자녀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각자 처소에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성도들은 중·고등부로 연락 바란다.

- 고등부 부장 : 정완진 집사 010-8889-9133
- 고등부 부감 : 한상욱 집사 010-8007-1506
- 최영경 권사 010-8618-6180
- 기도회 담당 : 박혜정 집사 010-8730-0452

수험생을 위한 기도후원자들

우리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을 위한 기도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임시 과정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제목

1.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2.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3. 임시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4. 학업에 임할 때 주께서 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건강 지켜주소서
5.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게 하소서

호산나대학 부모회 지원으로 컴퓨터 32대 교체 및 강의실 리모델링, 스마트강의실 신설



리모델링 후 컴퓨터실과 스마트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

지난 9월, 호산나대학은 부모회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32대 교체 및 컴퓨터강의실 2곳 리모델링과 스마트강의실을 신설하였다.

호산나대학은 2017년부터 학생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해 (주)트랜스코스코리아 기업을 유지하여 학생들이 교내 컴퓨터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전교생이 1년 계약으로 방과 후에 근로함으로써 월 60여만 원을 받음) 이에 따른 컴퓨터 사용량 증가와 관련 부품 노후화로 인해 호산나대학은 2020년 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전체 교체와 컴퓨터강의실 리모델링을 계획하였다.

부모회에서도 대학 측에서 계획 중인 교육환경개선 취지에 공감하여 부모님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상당 금액을 기부하였다. 이규복 부

모회장은 “학생들의 고용을 위해 교내 기업을 유지하여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감사하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 이에 부모회도 함께 뜻을 모아 소정의 금액을 마련하여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말했다.

호산나대학은 부모님들의 기부금 5천만 원으로 노후 PC와 모니터 교체(32대), 벽면 도색, 창호 공사 등 보다 쾌적한 학습 및 업무를 위한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태블릿PC(30대)를 갖춘 스마트강의실을 신설하여 교사·학생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새로 조성한 스마트강의실에서는 ‘시사따라잡기’, ‘프로젝트수업’ ‘생활수학’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며 발달장애학생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춘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등정

- 본당 예배 감사 전교인 떡잔치 : 이순례 권사 · 김정훈집사 · 김희정집사 가정 제공
- 득녀 : Gregory Heathco, 차신혜 성도 가정 (14교구 차영도 집사, 정미연 권사 장녀 가정)
- 서예진 (서준우, 남미희 성도의 딸, 서문석 장로 한춘홍 권사의 손녀)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 중학교 전교회장으로 선출되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교회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훼손된 예배당이 복구되기까지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2. 2020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예 힘씀으로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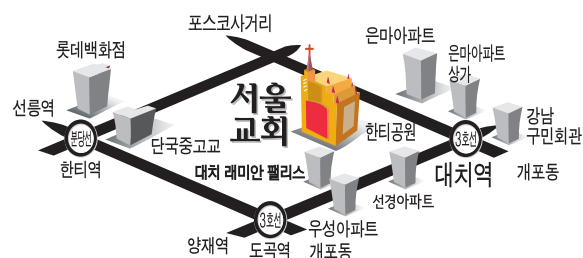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0월26일	월	요 4:46-6:15		겔 28-33	
10월27일	화	요 6:16-7:31		겔 34-40	
10월28일	수	요 7:32-8:59		겔 41-48	
10월29일	목	요 9-10		단 1-5	
10월30일	금	요 11-12		단 6-12	
10월31일	토	요 13:1-15:17		호 1-14	
11월1일	주일	요 15:18-18:40		을 1-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